

기독교교육을 위한 칼빈에 대한 고찰

이 은 규

(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칼빈은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로서 그의 생애 동안에 개혁된 교회(Reformierte Kirche)의 설립을 위하여 일하였다. 이러한 개혁교회 설립의 원동력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칼빈의 교회교육에 있어서 교리교육의 관심과 이러한 교리교육에 기초한 그의 제네바 목회사역인데 이는 언제나 개혁교회의 전통으로서는 하나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¹⁾ 때문에 그가 이룩한 업적과 남긴 정신과 사상과 유산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독교 교육적 작업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21C에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주 5일제 근무가 긴 주말로 인해 신앙심이 약한 성도들이나 준비되지 않은 예비신자들에게 줄 충격을 생각하면 이러한 작업은 필수적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신자들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헌신을 필요하는 교회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전리이고 무엇이 비전리인지를 구별하기 힘든 다원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신앙양육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을 어떻게 신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할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답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칼빈의 유산 속

1) 쾰링송, 「교육목회학」(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p. 315.

역서 찾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기독교교육과 기독교교육자들에게 제시하려 한다.

그렇지만 칼빈의 유산을 절대적인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차도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칼빈의 강점은 배우고 단점은 보완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배워 개혁되는 한국 교회교육을 칼빈의 이해, 칼빈의 교회교육, Catechism 교육의 회복, 교리문답 교육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이해와 적용-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모색할 것이다.

II. 칼빈의 교리 이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칼빈만큼 「교리」란 말을 자주, 그리고 중요한 의미로 사용한 사람은 드물다. 칼빈에 의하면 「교리」란 「설교」의 의미와 동등하게 사용되었고 또한 그러한 이해에 따라서 교회교육은 하늘의 교리를 설교하는 일이며 그 직무가 목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²⁾

그러면 칼빈이 강조하는 교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³⁾

첫째로 칼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계시로 본다. 그런 면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란 곧 구원사건을 뜻한다.

둘째로 교리란 성경과 성경내용의 총체를 뜻한다고 한다.

셋째로 교리란 교회의 근거요 바탕이라고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근본 토대가 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칼빈이 교회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제네바의 「신앙교육서」는 구상과 내용과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 초선자나 기존 선자에게 신앙의 물음과 대답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립적인 신앙논쟁의 판단 능력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교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바로 그의

2) Ibid., p. 316.

3) Ibid., pp. 316-317.

믿음에 대한 변호를 나타내고 언제나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⁴⁾

칼빈의 이러한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교회의 학습인 교육과 함교자 교육, 그리고 가정중심의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적 목회의 실체가 전개되었다.⁵⁾

III. 칼빈의 교회교육

이와 같이 칼빈의 교회교육의 중심과제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칼빈이 두 번에 걸쳐 집필한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에게 이해되는 교리교육(Katechismus)은 교리의 총합이었다. 특히 칼빈은 교회의 교리교육, 즉 'Catechism' 교육의 중요성을 그가 교세했던 영국의 한 성주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⁶⁾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 없이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선한 씨앗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왕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붕괴되지 아니하고 버티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아주 인상깊게 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끌어지도록 염려하고 돌보시오!" (Eduard Seymour에게 보낸 편지, 1548. 10. 22)

칼빈의 이러한 교리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초신자들을 위해 교리 안에서의 신앙 지식의 무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교육은 하나의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초신자들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을 위해 매주일 오후 집회 때에는 교리에 따라서 설교하도록 52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주일 정오 12시에 교회에 모여서 교리교육을 받게 하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Test를 거쳐 합격자에게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었다. 이처럼 칼빈의 교리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신앙의 근본지식, 기본

4) Ibid., p. 321.

5) Ibid.

6) Ibid., p. 325.

지식 그리고 분모기적인 것을 교리로 표현하여 가르침으로써 신앙적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삼게 하였던 것이다.⁷⁾

IV. Catechism 교육의 회복(回復)

1. Catechism 교육의 역사⁸⁾

'Catechism'을 통한 교육은 기독교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위한 교육이었다. 교회는 크게 두 영역의 내용의 가르침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독교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요, 둘째는 윤리적 가르침이다. 기독교 구원이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 구원 진리의 총체를 뜻하며, 윤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지침을 뜻한다. 즉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선양하는 자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의 지침을 따라서 교육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와 교육은 깊은 상관성을 지닌 것이며 우리는 다시 교리 교육이란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 따르면 사도들의 가르침(행 2:42)에서,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행 8:26-40)에서 볼 수 있으며, 후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인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그 근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다(특히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앙문답 교육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행하여졌는데, 특히 이와 같은 교육은 교회의 새신자 즉 이방인이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고자 할 때부터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준비교육으로서의 세례 문답자 교육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야 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교회의 성례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교육은 성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기독교의 진리는 물론 도덕적인 재훈련까지도 포함하

7) Ibid., p. 326.

8) 김현중, 「교육목회와 교회성장」(서울: 민영사, 1997), pp. 315-321.

어야 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문화유형이 관여하게 달라서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매우 낮은 자리에 있었다. 또한 교회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사이에 교회 안에 신자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성장해 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했거나, 그 생생한 삶을 소개받았던 기독교인 1세대들과는 달리 2, 3세대의 감격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초대교회는 이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적 책임을 자각하고, 이들에게도 신앙문답을 시행하였다.

초대 교회 초기에서부터 후기에 걸쳐서 발전되어온 신앙교육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성전과 가정에서 매일 행하는 구약성경의 기독교적 해석행위였고, 둘째는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로 성만찬 예식 이전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짙막한 해석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셋째는 베드로의 신앙문답을 풀이하는 것이었고, 넷째로는 구전에 의한 교육(Oral Teaching)으로 특히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며, 다섯째는 '삶의 두 길'(The ways of Living)이라는 생활권적으로, 특히 사는 일과 죽는 일에 대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3세기로 접어들어서 교회들은 교회의 구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가르침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례 청원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자를 위해서, 특히 그들이 이교적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역시 3세기 로마의 장로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사도적 전통>(The Apostolic Tradition, 215년경)은 고대 교회의 예전의 모델로서 신앙교육서의 완전한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적 전통에서는 3단계의 신앙문답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에 필요한 일반적인 교수는 물론 성경적인 교수를 포함하는 것이며, 둘째는 더욱 집중적인 교수로 세례준비기간 중에 복음을 교수한 것이고, 셋째는 세례시 또한 세례 직후에 성례전적 교수 또는 신비교육(Mystagogy)을 행하는 것이다.

후에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신자 세례 준비학교의 교사였던 시릴(Ciril, 315-386)은 세례 준비에 관한 23가지 연속 강의를 지술하였다. 이 강의는 세례 받은 후보자들을 위한 강의들과 세례 받은 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의 저작을 초기 교회의 신조 형태(Creedal forms)와 세례 의식(Sereminies of baptism)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4. 5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개종의 수적 증가 때문에 이러한 오랜 기간의 철저한 준비가 소홀해지면서 교회의 세례 청원자들을 학습인으로 받아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집약시켜 그들에게 가르쳤다. 대표적으로 여거스틴(Augustine, 354-430)은 <De Catechizandis rudibus>(초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 교수안내서)란 글에서 세례 준비기간을 40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이 교육은 신앙 교백적인 내용으로 한정시키고 목표는 성만찬에의 참여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례의 의미와 성만찬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침의 내용이 한정되었다.

로마 중세 교회를 거치면서 신앙의 가르침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 카를레스(Caesarius Von Arles, 470-542)는 그리스도인은 적으로 작기가 받는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신앙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으로 사도신경(Credo)과 주기도문(Paternoster)을 언급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5) 시대에 와서 아퀴나스는 "기독교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인간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사도신경(Apostolicum)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로써 주기도문(Paternoster), 셋째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로서 십계명(Dekalog)"이라고 하였다.

종교 개혁시대에 와서 신앙교육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아갔는데 이것은 먼저 루터(M. Luther)에 의하여 시작된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문답 교육이다. 루터는 1528년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방교회 신도들의 신앙지식에 대한 무지를 발견하고 돌아온 후, 그는 평신도 뿐 아니라 먼저 목사와 설교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려면 무엇을 신앙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붓을 들어 쓴 것이 그 유명한 루터의 대·소 신앙학습서들이다. 이 중심내용은 바로 중세교회가 다루었던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등이었으며 이를 질문과 대답의 도식 안에서 해설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루터는 그의 소신앙 학습서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책 출판 동

기를 쓰고 있다. "간결한 형태로 된 이 신앙학습서를 만들게 된 이유는 내가 최근에 돌아보는 가운데 비동하고 저잠한 상태에 놓여있는 교회 신앙교육의 실태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비잠한 실태를 도와주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과 더욱이, 마을에서나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익숙치도 않으며, 나태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어 하며, 세례를 베풀거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동기에서 만들어진 'Catechism'은 먼저 목사와 설교자들과 가정에 아버지들이 가르치도록 했던 것이다.

Calvin의 기독교 강요 제1판(John Calvin, *Intitutio Religiois Christiane*, 1536, Basel)은 루터의 '소신앙 학습서'를 모방하여 만든 일종의 'Catechism'이었던 것이다. 물론 2판, 3판을 거듭하면서 Calvin의 독자적인 신학 사상의 정립과 함께 신학 대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제1판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Catechism'으로써 구라파 전역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프로테스탄들이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더욱이 성인들을 위하여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칼빈(Calvin)은 먼저 그의 제네바 교회의 사역에 임하면서 1537년에 첫 번째 'Catechism'을 만들었다. 그는 'Catechism'을 로리의 종합(Summa doctrinae)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이해에서 신앙의 초보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Catechism'을 가르쳤다.

Calvin은 역시 'Catechism'을 설교와 함께 결부시켰는데, 그는 'Catechism'을 예전의 말씀설교(Praedication Verbi)와 동등하게 이해하였다. Calvin은 제네바 교회 제2차 사역의 부름에 따라 그는 교회의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두 번째 'Catechism'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전통적인 'Catechism'을 본받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총 373개의 질문과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올 성인들의 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55주일(55주일로 나눈 것은 52주는 매 주일이고, 특히 교회의 특별한 절기 때에 가르치도록 3과를 더 첨가시켰다.)로 나누어서 만들었다. 특히 저녁 예배시간(오후 집회)에 그것을 직접 설교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Catechism'의 특성은 바로 설교와 직결되었다고

하는 법이다.

'Catechism'과 설교와의 관계는 역시 1563년에 출판된 Heidelberg Catechism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원래 Heidelberg Catechism의 사용 목적은,

- 1) 교회의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 2) 목사들에게 참고서로써,
- 3) 매 9번째 주일마다 예배에서 성경낭독을 대신하여 읽는 책으로
- 4) 52주일 저녁 예배모임에 할 설교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1647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Westminster Catechism은 개혁파 신학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한국의 장로교가 선교 초기에 복음을 받아 들일 때 이 Westminster Confession(신앙고백서)과 함께 이 'Catechism'을 신앙교육의 표준으로 함께 받아들였고, 특별히 소요리문답은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회중교회, 침례교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교도 목사인 백스터(Baxter)는 이 'Catechism'을 가리켜 '내가 본 것들 중 최상의 요리 문답이요,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요리문답이며, 정통사상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요리문답이다.'고 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Catechism'은 '신앙의 가르침' 자체로써 더욱이 말씀 선포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해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도 독일의 루터파 교회는 루터의 'Catechism'을 교회 신앙교육의 기초로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혁파 교회들은 Westminster Catechism을 신앙교육의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 뿐 아니라 구라파와 미국의 전역에서도 동일한 것이다.

2. Catechism 교육의 중요성⁹⁾

개혁신학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교육에 있어서 그 교회가 진정으로 장로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신앙문답서를 통

9) *op. cit.*, 교육독화학, pp. 364-373.

한 교리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리교육은 교회교육의 실재에 있어서 임교문답자들과 성인(成人)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한다면 전체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육적 의의와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지식의 전수이다.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서구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요약으로서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을 크게 두 가지의 묶음으로, 세부적으로는 여섯 가지 묶음 안에서 성경이 요약되고 구원의 진리가 체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자는 기독교 구원의 가르침이요, 후자는 신앙적 삶의 지침으로서 윤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등이다. 이렇게 볼 때 교리교육은 성경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지식의 전수가 필요하다.

둘째, 신자들의 신앙관의 확립. 곧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를 확립시켜 준다.

신앙관이란 신앙에 대한 이해력, 또는 하나님의 구원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 신님의 기본적인 체계를 뜻하며, 나아가서 신앙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신앙관의 확립이란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기초한 신앙체계의 확립을 말한다.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은 바로 이러한 신자들의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는 기능을 부여해 준다.

셋째, 성경해석의 기본연석을 제공한다.

교리교육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 자질을 공급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찬 교리의 기본 교육을 통하여 신앙관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원 교리의 신이해를 통하여 성경의 전체를 보는 능력과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의 능력을 길러주게 되는 것이다.

넷째 바른 신앙적 삶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개혁신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인 신앙교육서, 즉 루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는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로서 그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리 장로

교회 교인들의 삶의 지침서는 1963년에 한국장로교회가 공적(公的)으로 받아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대. 소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로서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자들의 바른 신앙적 삶의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칼빈은 교리문답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¹⁰⁾

첫째, 교리문답 교육은 신자들에게 공동의 신념을 갖게 함으로써, 회중 내에서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서 통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수적의 시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리문답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교리문답 교육은 교회생활의 통합적 기능을 갖는다.

둘째, 교리문답 교육은 교회 내의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교리문답 교육은 개인들과 회중들에게 이단적 사교를 분별하고 이를 물리치게 해준다.

셋째, 교리문답 교육은 세례받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세례시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지키게 해주고, 그의 생애 동안 교회의 말씀과 예전에 참여함으로써 양육되어지는 지속적 성화 과정에 입문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 역할을 해준다.

V. 교리문답 교육에 대한 비판

3-5C의 교리문답은 교리적 교훈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학교의 흥성은 이런 흐름과는 다르게 나아갔다. 헬라 철학이 지배했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기독교는 그릇된 방향의 신앙교육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의 지도적인 입장이 되었다. 마침내 기독교교육은 그 인식론적 기초를 신앙 전통의 '내용', 곧 텍스트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10) Richard Robert Osmer, 『A Teachable Spirit』(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0), p. 129.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흐름에 이론적인 근거까지도 마련해주었고 스콜라적 기독교는 더욱 이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제 기독교 교육은 텍스트(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리)에 대한 암기의 차원이 되고 말았다. 종교개혁가도 이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교리보다는 성경을 더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인식보다는 성경적 지식을 더 선호했다.

이러한 텍스트 중심의 교육은 기독교교육 현장에 하나의 뿌리깊은 전통이 되었다. 성경 혹은 교리 등의 텍스트에는 객관적 진리라는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었고 그것을 전수받는 것이 교육의 전부였으므로 학교교육식 모형은 보편적인 교육 과정이 되어 버렸다.

이 같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체험 영역, 곧 텍스트를 강조하는 흐름이 발생했다. 즉 인간의 경험만이 확실한 인식의 기반이라는 외침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또한 올바른 성경적 인식론과는 거리가 멀다.

텍스트 중심의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기독교교육을 주지주의적이고 지식전수 중심의 교육론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컨텍스트 중심의 경험론적 인식론은 기독교교육을 지나치게 탈규범적이고 인간 경험중심의 교육으로 판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새로운 인식론적 틀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인식론의 틀은 교리교육도 경험주의 교육도 반대한다. 토마스 그롬은 "기독교교육의 기반이 되는 성경적 삶의 방식은 관계적이고 경험적이며 성찰적이다."¹¹⁾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인식론의 틀을 제시했다.

더욱이 보수주의 입장에서든, 신앙교육서의 교수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많은 비판점이 있다.¹²⁾

첫째, 전통적인 신앙교육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질문의 형태는 유일한 교수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신앙교육서에 적용된 질문이란 오늘날 현대 교육학에서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

11)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pp. 207-217.

12) 정일홍(ed.),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카르텔」, (서울: 도서출판 종단, 1987), pp. 242-246.

칠 정도로 단순로운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제네바 신앙교육서(1542)의 제1문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와 하이델베르크의 제1문과 제2문에서 신앙교육서의 구조의 조직적 체계를 표현하고 있지만 명확한 설명은 부족하고, 이러한 체계가 학습목표나 교과과정을 암시하는 역할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어설프다.

셋째, 신앙의 훈련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알 필요를 가진 신앙교육서의 지나친 강조와 "신앙교육서"를 "요리문답(費理問答)"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드려 알기 위주로 흘렸다.

넷째, 가르침과 삶의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신앙교육서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요리보다는 성경을 더 강조해야 할 필요도 불구하고 실제에는 이따금씩 신앙교육서를 배움에 있어서 성경사용이 정지되거나 성경과는 무관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VI.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이해와 적용-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비교

1. 제22과 십계명 : 제1계명¹³⁾ :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내용

137문 : 이 말의 뜻을 설명하십시오.

답 : 하나님은 전 계명을 위한 일종의 서론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영원한 자요, 세상의 창조자로 부르실으로써, 명령하시는 권위를 스스로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칭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138문 : 제 1 계명을 암송해 보십시오.

답 :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13) Ibid., pp. 89-90.

이호외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출 20:2-3; 신5:6-7).

138문 : 그러나 그가 다음 부분에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답 : 물론 용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그가 우리의 영혼을 죄에 의한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질에 있어서 모두가 우리에게 관측된 것입니다.

139문 : 왜 그는 그의 계명의 서두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답 : 우리가 얼마나 그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와 그 반대로 얼마나 감사를 잊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40문 : 그는 이 첫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 우리는 마땅한 영광을 오직 그에게만 드리고 아무에게나 그 어떤 것에게도 그 영광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41문 : 어떤 영광이 다만 그에게 해당됩니까?

답 : 홀로 그를 칭배하고, 부르며, 우리의 신뢰를 그에게 세우고 그의 존엄에 들러드려야 할 모든 일들입니다.

142문 : 왜 그는 "내 앞에"란 말을 합니까?

답 : 그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며, 인간의 비밀한 생각의 심판자이시기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서 인정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으로부터 그리고 순수한 정직 가운데서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2. 제3과 제1계명¹⁴⁾ : 「이해와 직용-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

14) 「이해와 직용-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서울 : 도서출판 동서남북, 1999), pp. 101-105.

제 45문 제 1 계명은 무엇인가?(제 1 계명)

답 : 제 1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 before me)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하신 것이다.¹

제 46문 제 1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구하는 의무)

답 : 제 1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² 승인하며³ 이에 따라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⁴

제 47문 제 1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금하는 죄)

답 : 제 1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⁵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⁶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⁷ 홀로 그에게만 드릴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⁸

제 48문 제 1 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나 외에"가 가르치는 내용)

답 : 제 1 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⁹

성경 구절

¹출애굽기 20:3

²역대상 28:9

³신명기 26:17

⁴마태복음 4:10

⁵로마서 1:20, 21

⁶시편 81:11

⁷시편 14:1

⁸로마서 1:25

⁹시편 44:20, 21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질문에 시원한 답을 주신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2:37에는 "마음을 다하고 복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은 전인격을 동원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전 자신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첫 둘 관에서 하나님 사랑을 4가지로 말씀하신다. 그 첫째가 제 1 계명이다. 제 1 계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오직 하나님 뿐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진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믿고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줄 알고 삶 전체에 이 사실을 적용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바른 경배가 되도록 많은 주위를 기울인다. 방해되는 어떤 것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로 케어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예배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지 않겠는가?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성화신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아 알게 해 주신다. 성령의 종성하신 위로를 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해 주신다.

그런데 실로 우리를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탐심을 넣어 두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행복함을 기대하고 살아간다. 왜 우리들은 이저런 어리석을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대화의 문을 먼저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감사의 보답은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우리 자신들을 놓고 얼굴이 붉어짐을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배제 있

게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그냥 두는 한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영광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리고 경건도 얼마나 퇴보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알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수로를 틀어박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복을 말하고 있다. 너무나 과렴치한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다. 기껏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며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토록 희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 다오! 하나님에만 영광 돌려다오! 이처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뿌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영의 귀가 막혀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이 서문을 읽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어 보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당대히 나와 하나님의 공화국을 구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짓도록 하자.

1. 하나님의 앞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정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고 승인함이 앞서야 한다. 역대상 28:9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설거 온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임에 분명하다. 그러편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시편 139편에서 찾아 보라(참고 롭 1:15)

근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데 있다. 자신에게는 이런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2. 하나님을 승인함

물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승인함이다. 승인한다 함은 공적인 고백이며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명예를 돌려 드리는 것을 말한다. 신명기 26:17에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신다. 하나님에 관하여 승인할 내용들을 신명기 26장과 열왕기상 18:21에서 정리해 보라. 그리고 시편 48:14과 고린도전서 8:6도 참고하라.

Calvin은 4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순복하여 그에게 경외와 예배를 드리는 찬미의 생활이다(시 63:3, 7, 수 24:22).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포함된다(신10:12). 물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신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안기어 안식하는 확신이며 하나님께 지혜와 의와 능역과 신 전체를 돌림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뤄지며 축복을 받는다(골 1:24-25). 셋째는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기도이며(히 4:15-16) 넷째는 일체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감사이다(빌 4:6-7, 시 106). (Ins., 2, 8-16). 이 글에서 느낀 점을 말해보자.

3.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인정한 것에 어울리는 경배를 드리며, 또한 이것에 어울리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림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며 신앙 생활하는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지 글로 옮겨 보라. 그리고 그러한 흔적을 삶에 가지고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좋다.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기로 작정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하자. 그리고 당신의 결단을 기록하라.

4. 시편 44:21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대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냐"라고 한다.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당신도 고라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5. 로마서 1:20-21, 25, 사편 81:11, 14:1, 44:20-21에서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각 구절들의 예를 자신의 삶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혹시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써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홀로 하나님에게만 드릴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에서 살펴보자.

6.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신이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7. 제 1 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을 다음 구절에서 정리하라. 그리고 자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찾아보고 각각에 대한 자신의 결단을 적어라.

1) 하나님을 배리며 멸시함(신 32:15)과 무신론(시 14:1), 성령을 근심시킴(행 7:51, 엡 4:31), 성령을 속임(행 5:3)

2) 참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렘 2:27, 28, 1p 20:6, 마 23:9, 단 5:23, 신 8:17, 합 1:16)

3)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고 듣지 않는 것(시 81:11)

4)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태만히 함(사 43:22, 23)

5)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함(렘 4:22)과 잊어버림(렘 2:32)

6) 하나님의 비밀을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신 29:29)

7) 하나님을 미워함(롬 1:30, 참고 행 26:9)과 자기를 사랑함(딤후 3:2)

- 8) 하나님을 믿지 않음(시 78:32)과 절망(렘 37:11)
- 9) 하나님을 시험함(마 4:7)
- 10) 육체의 기쁨을 추구함(딤후 3:4, 갈 4:17, 계 3:1, 16)
- 11) 하나님의 하신 일에 불만을 가짐(시 78:2, 3)

8. 출애굽기 20:3의 "나 외에(내 앞에)" 이 말씀이 내포하는 깊은 의미를 48문에서 정확히 하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느끼는 것은 없는가?

9. 출애굽기 20:3의 말씀을 가지고 제 1 계명을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영광을 돌려 드릴 자리에 모조품으로 대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주체롭게 생각한다면 이는 얼마나 파멸적인 생각일는지(시편 50:21상)!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모함에 불경건의 죄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은밀한 것까지 정함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시 나오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위에서 비교했듯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조직 배열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신앙교육서(내용)를 어떻게 선택, 조직, 배열하여 가르쳐야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카테키시스(Catechesis)는 삶, 배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증거 속에서 상징적, 상호적, 변증법적 과정이다."¹⁵⁾ 라는 Westerhoff의 지적에 의하면, 신앙교육서를 통한 지식 전달만이 신앙교육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15) Norma H. Thompson, 'Religious Education and Theology', (Birmingham :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2), P. 220.

VII. 나가는 말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분담교육은 그 역사와 전통에 비추어 본 때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오늘날도 서구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의의와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규범적 신념과 실천을 성경을 기초해서 결정해야 하는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게 되지 못하면 교육목회의 기반은 없어지게 된다.¹⁶⁾

때문에 다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교육의 차원에서 이 신앙교육서를 기본적으로 중요한 틀로써 사용하여 이 시대를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전통만을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될 것이고, 더욱이 신앙교육서 신봉주의에 빠져서도 안될 것이다.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이해와 적용-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비교에서 보았듯이, 얼마든지 교리를 이해시키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Catechism 교육의 회복이란 무조건 종교개혁시대에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로 돌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자는 것은 아니다.

교회생활의 통합적 기능과 이단적 사고를 분별하게 하며 은혜 수단 의 역할의 기능을 가진 「신앙교육서」의 내용을 어떻게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고 시대상황에 맞게 그리고 대상에 맞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Catechism 교육의 회복일 것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던 교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바꾸고 전통은 고려타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칼빈에게로 돌아가서, 교육과정인 내용을 가져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장을 여는 것이 21C를 맞은 우리 장로교회들의 교회교육의 최우선적인 과제요 책임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이제 장로교회들은 기독교 프락시스를 신학적 실재로 삼고 교육목회를 재개념화 해야 한다. 프락시스(praxis : 이론담지적 실천)

16) *op. cit.*, 교육목회의 회복, p. 45.

의 개념은 단순히 실행이라는 의미 이상을 말하고 이론을 따라가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과 성찰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는 행동을 말한다. 때문에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인식하고 줄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과제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질의 위에 기초한 교회가 될 것이다.